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으로 보답"



지난 9월 3일, 기분 좋게 인천 월미도를 향해 떠났던 나는 일주일 동안 잠잠도 못하고, 먹여주는 밥에 소변도 침상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고를 당했다. 참으로 아팠다. 아파서 울며 너무 두렵기도 했다. 정말 이러다가 못 일어나는 거 아닐까 집에 못 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울었다. 조금 지나니 속이 상하고 나 자신이 미워지기 시작했다. 2014년 2월에 병환에 미끄러져서 손목이 골절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그 해 5월에 3번 척추 골절이 되어 큰 고생을 하면서 시술을 했었다. 그 이후에 더 건강해져서 허리 통증을 모르고 지내다 보니 허리가 건강한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 다친 내가 밟고 속이 상해 울었다. 그런데 병원에서 새벽 5시에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데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깨워주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백운교회에서 새벽 제단을 쌓는 목사님

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날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를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나도 일어나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지만 누운 상태에서 두 손을 허리에 대고 간절히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 기도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하루에 네 번씩은 진통제를 맞아도 통증을 못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먼 인천까지 여러 차례 심방을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또 오신다고 해서 아프더라도 일어나서 심방을 받으리라 마음먹고 허리보호대를 하고 간신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허리에 힘이 생겼고 점점 좋아져서 23일에 퇴원하려던 것을 19일로 당겨서 퇴원을 할 수 있었다. 퇴원하는 날 차를 기다리는데 내 코 끝을 스치고 지나던 바람이 어찌나 향긋하던지 '아이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

로 나왔다. 걸을 수 있고, 교회 마당을 밟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고, 맡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감사의 감동으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처럼 지난해와 올 한해 내게 육체적인 고난이 많았어도 하나님께서 더욱 더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다. 아직은 허리가 많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더 충성하는 안종숙권사가 될 것을 날마다 결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해주신 백운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 들께 감사를 드린다.

〈원서/안종숙 권사〉

모두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낮 12시, 요셉속 박종옥 집사가가를 방문하였다. 집으로 향하는데 이수길 권사가 드라이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고치고 있었다. 혼자 사시는 박종옥 집사를 위하여 현관문을 고치고 있던 것이었다. 거실안은 어두웠고 큰상이 두개 펼쳐져 있었다. 속도원들이 웅기종기 앉아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영애속장은 잔잔하면서 평안한 목소리로 말씀을 잘 전달했다. 기도를 맡은 김광호권사는 한 가정 한 가정을 놓고 진실된 기도를 드렸고, 헌금기도를 맡은 홍순정권사도 마음을 담은 정성된 기도를 했다. 중보

기도는 열명의 속도원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마치 지붕이 들썩거릴 만큼 크고 우렁찼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예배 후 상 위에는 먹음직스럽게 담긴 김치와 고들빼기, 과일이 놓여 젖고, 그날의 하이라이트 메뉴가 등장하였다. 속도원들을 위해 한 땀 한 땀 빔어낸 박종옥집사표 칼국수였다. 맛있고 재미있게 이야기 꽃을 피우며 모든 순서를 마쳤다. 그 후 이수길 권사는 어두 침침한 거실의 2구 형광등을 4구 형광등으로 바꾸어 주었다. 4구 형광등은 김석범장로가 가지고 온 것이었다. 속도원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 박종옥 집사의 거실은 이제 환해질 것이다. 어두웠던 거실이 환하게 되듯 요셉속 모든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길 바란다.

〈정남미 사모〉



허 의 행
화당초교 교장

"마음과 뜻을 모으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며칠 전만 해도 넉넉한 백운의 들판을 가득 채웠던 황금물결과 붉고 향기로운 사과밭이 수확을 끝내고 썰물 나간 자리처럼 텅 빈 들이 쓸쓸하기 그지없네요. 유난히 극심했던 가뭄 속에서도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백운은 풍년 농사를 이루고 춤을 취야할 판인데 풍년 뒤에 오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부들은 속앓이를 하고 잦은 가을비처럼 우중충한 뉴스만 들려오는 연말이지만 농부들은 또 다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봄을 준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약초 재배지로 이름이 나기도 한 백운의 농부들이 가짜 백하수오 바람으로 식약청의 조사를 받는 등 자존심에 상처받는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누구 하나 억울한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김수영시인이 노래했던 '풀'과 같이 순리대로 자연 속에서 깨달은 삶의 지혜가 있기에 여전히 감사하고 스스로 행복을 찾는 모습들을 주위의 어르신들에게서 볼 때마다 감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답니다. 우리 백운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백운은 천등산과 백운산이 막아주고, 골마다 맑은 샘물이 도랑을 이루는 청정 지역이며, 지역 전체가 굳건한 암반층을 형성하고 있기에 자연재해로부터도 안전한 곳이니, 백운은 축복의 땅이며, 하늘이 내린 길지임에 틀림이 없네요. 이제 휴식의 겨울잠에 들어가는 마을과 결실을 마무리하고 떨어진 사과나무의 낙엽들을 보며 올 한해 맛난 먹거리

들을 생산하신 농민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자생력을 갖춘 농촌 마을, 최고의 품질을 생산해내는 백운의 농산물 브랜드, 유통망을 선도해가는 농업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발전하는 농한기를 지내셨으면 합니다. 한 사람이 꿈꾸면 꿈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여럿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과 뜻을 모으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하지요? 백운면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협동해서 언제나 아름다운 백운을 가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소외계층 50가구, 각 마을회관 22곳 등... 제천시 백운면 박달재전통시장 상인회(회장 김교영)는 지난 주말 상인회원 10여 명이 모여 추운 겨울을 힘들게 보낼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하고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 등 소외계층 50가구와 각 마을 경로당 22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2kg씩 포장하여 백운면에 기탁하였다.이에 백운면(면장 신영철)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영숙 권사〉